

싫어함과 박대하는 마음은 구함이 많기 때문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9)

비구 발거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시 때였다. 5백 비구들이 불사를 위해 화주를 구하려 다녔다. 장사꾼들은 비구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이내 가게 문을 닫고 그들을 피했다. 그러면 비구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거둬 과보를 설명하여 신심을 내게 했다. 심지어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억지로 보시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그대로 하여금 색력(色力)과 수명을 얻고 공덕을 더하여 감로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요.”

장사꾼이 그 말을 듣고 신심을 내어 약간씩 보시를 했다. 후에 장사꾼들이 사리불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사리불에게 하소연 했다. 이야기를 들은 사리불은 돌아가 들은 이야기를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오늘날 비겁한 것이 아니었다. 전생에서 큰 꼬끼리 한 마리가 숲 속에 살고 있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나무를 부러뜨리자, 꼬끼리는 나무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두려워하면서 달아났다. 그 두려운 마음이 조금 사그라지자 다른 나무 밑에 가서 서 있었는데, 그 나무도 부러지는 지라 또 달아났다. 그때 천인이 계승으로 말했다.”

“바람이 사나워서 숲 속의 나뭇가지 꺾이네. / 큰 꼬끼리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달아나는구나. / 그렇다면 이 넓은 하늘 아래에 / 큰 꼬끼리여, 어는 곳으로 피하려는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의 꼬끼리가 바로 숲 속의 비구이다.”

“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 사람은 다시 선인에게 말했다.

“그 용의 목구멍 아래에 영락보주가 있습니다. 용에게 그 보주를 달라고 청해보십시오. 용이 성질이 워낙 구두쇠라 끝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용이 다시 나타나자 선인은 용에게 보주를 달라고 말했다. 용이 청을 듣고는 금방 마음이 불쾌해져서 천천히 몸을 풀고 떠나갔다. 다음 날 용이 다시 나타나자 선인이 계승으로 말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마니보인 / 영락으로 그 몸을 꾸미셨구려. / 만약 용께서 나에게 보시하면 /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용도 계승으로 말했다.



삼화 · 강병호

과거 세상에 발거라는 비구가 숲 속에 살고 있었다. 이때 수리들도 이 숲에 동지를 틀고 살고 있었으니 아침저녁으로 어지러이 울어대어 발거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발거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발거에게 물었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다른 괴로움도 없이 안락하게 숲 속에서 살고 있느냐?”

발거가 대답했다.

“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즐거이 숲 속에 있습니다. 다만 수리들이 울부짖고 어지러이 굴어서 사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세상에 5백의 선인들이 설산 안에 살고 있었다. 다른 한 선인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고, 꽃과 열매가 무성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었고, 그 물 속에는 용이 살고 있었다. 용은 선인의 위엄 있는 의젓한 자태를 보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선인을 찾아가다. 마침 선인이 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용은 선인을 일곱 바퀴 돌고 머리로 선인의 정수리 위를 가리고서 자리를 잡았다.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선인은 용이 몸을 예위싸고 있기 때문에 밤낮 짹짹이 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야 했다. 그랬더니 몸이 아위고 욕창까지 생겼다.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항상 선인을 공양하곤 했는데, 하루는 선인에게 왔다가 몸이 아위고 욕창까지 생긴 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선인이 이제까지의 일을 자세히 말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마니주를 잃을까 두려워 / 막대를 잡고 개를 부르는 것과 같네. / 보배 구슬은 얻지 못할 것이오. / 다시 그대를 보러 오지 않으리다. / 구하는 것이 많으면 진애(親愛)를 잃으리니 / 이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천인이 허공에서 계승을 읊었다.

“싫어함과 박대하는 마음은 / 모두가 구함이 많아 생긴다네. / 범지의 탐내는 모습이 나타나자 / 용은 바로 못 속으로 잠겨 버리누나.”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과 꼬끼리는 하찮은 축생인데도 오히려 많이 구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물며 사람이 어떠한지냐? 너희 비구들은 일을 많이 벌여서 널리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르면서 저들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들로 하여금 마지못해 재물을 희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마하승가율》 제7권에 나오며, 또 《미사색부화혜오분율》 제3권에도 나오는데, 글의 내용은 같지 않다.

동국대역권원 발행 <경률이사>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29



장병들 수계보며 ‘군포교’ 다시 생각

논산 훈련소 군 법당을 다녀와서

논산 훈련소엘 가기로 했다. 내가 만든 공립 공양 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가기로 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밤 내내 설레이기도 했다. 오후 2시에 있을 운문사 수계식에 맞춰 오전 9시에 출발을 했다. 언제처럼 기도하며 점심도 준비해서 갔다. 나는 16년 전부터 군법당후원회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겐 이번 방문이 낯다르다.

내가 군 법당을 후원하게 된 동기는 내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아들은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고, 한 달간의 훈련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아들은 연세대 재학 시절에 불교 동아리 회장을 했었다. 그 동아리 방(법당) 부처님 행화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다니는 한 살 아래 여동생이 그랬고, 표구를 내가 해주었다. 그렇게 법당 불사를 했다. 그때 동아리엔 인호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임대를 했는데, 부대장이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들었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범사를 시켰고, 열떨결에 ‘범사’가 된 인호가 걱정하며 하소연 했던 생각이 났다. 한 달에 한번 하는 범회를 하기 위해 한 달 내내 불교에 관

일이다. 부처님 말씀의 귀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우선 범회에 앉혀야 하는 것이 내가, 우리가 할 일인 것인데 그 일이 쉽지가 아닌 것임을 깨달았다. 생각 없이 의욕만 넘쳐 스님께 무리한 부탁을 드려 송송했다.

나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차분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도반들과 함께 스님께 장병들에게 나눠 줄 음식들을 보내드렸고 스님은 매달 파주 법당에 범문을 하러 가실 수 있게 되었다. 차츰 소문이 퍼지면서 이웃 다른 부대에서 스님의 범문을 듣기위해 모여들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인호는 제대를 했다. 그 후 거해 스님은 미국에 가셨고, 나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군법당 돕는 일을 해왔다. 이제 나와 도반들이 나이도 들고 해서 16년의 후원을 이번엔 회향하기로 하고 각자의 인연따라 종단에서 하는 군 법당 후원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논산 법당도 도착했다. 일주문을 지나 너무도 웅장하고 잘 지어진 큰 법당 앞에 서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장병 위문하러 갔다가 위문받고 공부하고 돌아와

한 책을 읽어도 10분을 해 줄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때 서울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그 당시 미안한 등에서 만나서 수행을 하시다 돌아오신 거해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호가 생각나서 스님께 부탁을 드려 인호가 있는 경기도 파주의 군 법당 엘 같이 갔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또 부대의 전화가 자유롭지도 못할 때여서 그냥 무작정 부대 이름 하나 들고 찾아 갔다. 일요일인데도 마침 외출 하지 않고 부대에 있었던 인호를 법당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인호는 이 법당이 사병들의 쉼터라고 했다. 이유인 즉 교회나 성당은 초코파이라도 주니 그리로 물러가고 여긴 벽에 기대어 쉬고 싶어 온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근심을 하게 되었다. 법당을 찾는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라면 이는 정말 큰일인 것이다. 나는 사정 이야기를 하고 거해 스님께 범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스님은 못한다고 했다. 나는 못내 섭섭하여 스님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그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는 일인데 빈손으로 사람을 부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속내를 보였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스님의 말씀이 옳았다. 부처님 말씀만 내세운다고 하는 아닌

오후2시 장병들 수계식이 있어 법당으로 함께 들었을 때 이미 가득 찬 우리 국군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깨알같이 많은 장병들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놀란 토끼처럼 뛰기 시작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우리가 장병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미안하고 쑥스러웠다. 운문사 명성 큰 스님이 단상으로 등단하시고 뒤따라 함께 오신 비구님 학인스님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수계의식이 시작되었다.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1200 비구가 모여 있는 듯했다. 이윽고 스님이 범문을 내리시고 장병들은 부처님께 지계를 맹세했다. 스스로 계를 받았다고 모인 장병은 무려 3400명이었다. 3400명의 새로운 불자가 생긴 것이다.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그 큰 우렁찬 목소리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도 또한 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볼게 되었다. 70평생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군인을 본 일이 없었다. 넘뜸한 우리의 아들들이다. 멋있고 믿음직했다. 이렇게 귀하고도 아까운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이니 어찌 남의 아들들이라. 모두 나의 아들이었다. 우리 모두 맘 편하게 살고 있음도 이 든든한 아들들 덕분에 우리도 작지만 그 보답을 해야겠기에 이곳 법당에서 더 많은 불자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한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원력을 세웠다. 각각의 가족 원불(願佛)을 모시기로 했다. 점점 더 많은 불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곳이 포교의 전당이 되길 바라면서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나라 불국정토로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오늘 너무도 뜻있는 행사였다. 위문을 갔던 우리는 위문을 받고 왔다. 모두가 행복했다. 그리고 평소 소신 신문지상이나 TV에서만 봤던 자람 큰스님과 명성 큰스님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오늘은 스스로 100점의 하루였다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싶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 
 [벽돌 한장]
 10,000원
- 
 [책상·의자]
 50,000원
- 
 [땅 한평]
 100,000원
- 
 [식수대]
 300,000원
- 
 [컴퓨터]
 1,000,000원
- 
 [교실 한동]
 10,000,000원
- 
 [법당(10명)]
 50,000,000원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